

한글專用法 나온 朴大統領 時節 오히려 漢字教育 活潑했다



閔 寬 植 (前 文敎部長官, 全國漢字教育推進總聯合會 會長)

月刊 프린팅코리아로부터 原稿請託을 받았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온 게 請託內容이었다.

文化 出版 및 印刷 그리고 漢文敎育과 관련된 內容이면 다 좋다는 것이었는데 筆者의 눈에는 맨 마지막의 ‘漢文敎育’이 큼직하게만 비쳐졌다.

“그래 이 부분은 현재 印刷와 出版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強調해야 할 몫이구만...” 하는 생각이 들었다.

全國漢字教育推進總聯合會 會長이란 職銜을 갖고 있는 筆者로서는 時間을 내서 일부러 찾아가 漢字敎育과 한글-漢字 併用의 重要性을 說破하고픈 分들에게 이렇게 좋은 機會가 스스로 찾아 왔으니 어찌 마다할 일이겠는가 말이다.

이제 筆者의 記憶을 거슬러 올라가 漢字敎育과 관련된 逸話를 먼저 둘러보고 그다음 漢字敎育의 重要性을 筆舌로 이어가 보고자 한다.

1971년, 當時 朴政熙 大統領으로부터 文敎部長官에 拔擢된 筆者는 이듬해 大統領 年頭報告에서 漢字敎育 因緣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漢字와 관련된 그때의 에피소

드를 紹介하면 大略 이렇다.

이 무렵에는 年頭報告때 브리핑차트란 것을 活用했다.

요즘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多様な 發表技法이 있지만 그 時節에는 軍隊에서 차트兵으로 除隊한 사람이면 企業體 就職때 人氣를 끌 만큼 브리핑차트가 무척이나 많이 쓰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文教部 職員들이 長官의 報告內容을 브리핑차트로 만들어 왔는데 전부 한글로 된 것이었다.

‘한글專用法’이 70년대부터 시작됐으니 公務員들로서는 당연히 “알아서 기어야 할 遵守事項”이 모든 브리핑차트를 한글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그 브리핑차트를 ‘보이콧’ 했다.

“이거 漢字 섞어서 다시 만들어와”라는 한마디로...

이 한마디가 文教部 전체를 발각 뒤집어지게 했다.

室-局長이 내게 달려와 “이러시면 안됩니다”하고 挽留에 挽留를 거듭했던 것이다.

결국 筆者의 固執에 못이긴 文教部 職員들은 죽을 상을 하고서 내키지 않는 한글과 漢字兼用 브리핑차트를 만들어 냈다.

마침내 年頭報告를 할 날짜가 다 됐다.

큰 소리는 쳐냈지만 一國의 長官이 大統領이 公布한 ‘한글專用法’이 施行된지 겨우 1년을 넘긴 뒤 年頭報告에서 漢字를 섞은 브리핑차트를 내놓는다는 것은 적

잖이 가슴 줄이는 일이었다. 힐끔힐끔 大統領의 顔色을 살피는 눈치를 보면서 브리핑을 마쳤다. 그리고는 애써 태연한척 하며 이렇게 여쭙었다.

“보시기 좋으시라고 漢字를 섞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라는 筆者의 물음에 大統領께서는 “응, 괜찮은데...”라는 答을 주셨다.

이때다 싶어 다음번에는 大統領과 獨對하는 자리에서 漢字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했다. 그저 묵묵히 듣고 계신 大統領의 입에서 이렇듯 意外的 말씀이 나오셨다.

“그럼 임자가 한번 (漢字教育)計劃을 짜와 봐”

그후 中學校와 高等學校에서 배워야 할 基本漢字教育에 대한 趣旨와 目的 學習方法등을 다룬 報告書類를 만들어 決裁를 올렸는데 보통 사흘이면 내려와야 할 決裁書類가 깜짝같이 蒸發된 事件이 發生했다.

大統領께 書類이야기를 꺼냈더니 못 보셨다는 말씀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書類를 빼돌린 것이다.

그래서 다시 決裁를 올려 마침내 1800 基本漢字를 制定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한글專用法이 朴 大統領 治下의 遺産이라고는 하나 그분이 漢字를 否定하면서 까지 한글專용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師範學校를 나와 教育에 남다른 一家見과 愛情을 가진 故 朴正熙 大統領은 民族精氣와 民族 自主精神을 強調해야 하는 當時 狀況에 立脚한 政治的 苦悶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朴 大統領의 民族主體精神을 앞세운 한글 優先使用의 教旨가, 不純한 意圖를 가진 또 다른 政治的 集團에 의해 歪曲되고 造作되어 한글專用法이 된 것일 따름이다.

어찌됐든 筆者가 文教部長官 在任時節 公布된 이 基本漢字는 사실 筆者 나름대로는 事大主義的 發想이 아닌, 純粹한 國語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힘주어 말하고 싶다.

英語의 알파벳도 라틴어에서 由來됐듯이 우리 한글이 漢字에서 전혀 그 影響을 받지 않고 土着化된 自然發生的의 文字라고 主張할 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國語를 제대로 하려면 漢字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筆者의 持論이다. 마치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기원인 라틴어를 알아야 하듯이...

만약 한글專용주의의 말대로 순수 한글로 우리의 國語를 理解하려면 이미 우리말이 存在했던 世宗朝 이전의 모든 역사는 否定을 해야 한다는 뜻 밖에 안 될 것이다.

漢字教育의 重要性은 우리나라에서 教育에 가장 관심이 깊

專用은 漢字의 抹殺 아닌 優先使用을 勸獎한다는 뜻

法은 時代精神과 必要 反影…時間 흐르면 法도 바뀌어야

고 教育政策의 최고 專門家라 할 역대 教育人的資源部長官(물론 文教部라는 部處名稱을 사용하던 때가 당연히 포함된다)들의 認識에서 금방 찾을 수 있다.

올 4월 이들 前任 長官 13명이 初等學校에서 漢字教育을 실시해야 한다는 建議文을 連帶名義로 제출했다.

前任 長官중 윤형섭 前長官이 빠졌는데 그는 한글專用論자 이기에 빠졌다. 그러나 歷代 長官조차 13:1의 손을 들어 漢字教育의 重要性을 力說한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이 建議文은 “우리말의 70%이상이 漢字語彙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만 表記하면 읽어도 그 意味를 제대로 알 수 없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不確實한 語義로 國語生活을 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筆者는 歷代 教育部長官의 의견도 좋지만 民主主義 國家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重視해야 할 國民의 輿論의 反影이 더 주된 政策의 價値觀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얼마전 한국갤럽이라는 輿論調查기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成人 1,502명이라는 標本集團중 ‘國-漢文 混用에 찬성한다’는 應答자는 55%로 ‘한글만 써야 한다’는 33%보다 많은 지지를 얻었다. 無應答은 12%가 나왔다. (朝鮮日報 4월 22일자 報道) 심지어 20대에서조차 國-漢文 混用을 지지한 階層이 45%로 한글專用 40%보다 높았다.

國-漢文混用을 贊成하는 주된 이유는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 69%, “자녀교육상 좋기 때문”이 10%, “한자와 한글은 밀접하기 때문”이 8%의 순이었다. 또 “漢字를 모르면 生活이 불편한가”라는 질문에 70%가 “불편하다”라고 應答했다. 여기에 漢字教育을 소홀히 하면 아시아經濟圈에서 國家競爭力이 弱화된다는 設問에도 무려 54%가 同意했다.

이것이 우리 國民의 漢字에 대한 理解요 認識이며 또한 主張인 것이다. 이런 國民의 輿論을 어찌서 教育政策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까?

漢字教育의 重要性을 강조하는, 筆者를 비롯한 이들은 漢字專用教育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國-漢混用이라는 前提를 단다. 한글과 國語를 無視

하지는 얘기가 아니잖은가.

한글專用論의 거센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漢字教育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漢字專用論자들이 아닌 바에야 한글專用을 주장하는 이들도 한글優先論자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을 筆者 자신에게 되물어 본다.

사실 專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漢字요, 또 여러가지 뜻을 가진 말로 바뀔 수 있다.

‘전용’은 全用과 專用 그리고 轉用이 있으며 그 意味 역시 차이가 크다.

한글을 빌려와서 쓴다는 우스꽝스러운 指摘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곧 한글이 우리 글이 아니라 解釋으로 까지 이어진다.

우리글이 남의 글이 되어버리는 한글專用論은 그래서 危險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情報化와 多元化時代를 살아가는 世代들에게 과연 專用이라고 하는, 지극히 獨占的이며 黑白論理的인 表現의 收容을 強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도 묻고 싶다.

自由롭고 創意的인 思考를 통해 國家社會發展을 主導해야 할 2세대에게 한쪽통로요, 외길밖에 없다는 딱 막힌 한글專用主義의 遺産을 물려주어야만 할까?

〈계속〉